선지식 7인, 봉은사서 '간화선 진수' 설한다

'평화·화합 봉은사 담선대법회'
조계종·선원수좌회, 법왕루서
4월 13~19일, 매일 오후 2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지난해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민을 위로했던 담선대법회가 올해는 서울 봉은사에서 펼쳐진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상임대표 불산 스님)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후 2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세계 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봉은사 담선대법회'를 봉행한다.

담선대법회는 고려시대부터 국가에서 3년마다 개최한 법회로, 선의 지혜로 국민 대화합과 국운융성을 발원하는 대법석이다. 지난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발원으로 서울 조계사에서 처음으로 열려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봉은사에서 봉행되는 담선대법회는 선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수행전통으로 자리잡았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곱 명의 선사들이 이 땅에 간화선의 기반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려운 시절을 수행을 통해 어떻게 이겨냈는지, 간화선이 어떻게 우리 삶에 뿌리내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를 설할 예정이다.

4월 13일 금아 혜국 대선사(석종사 조실)가 성철 스님을 주제로 시작해 △14일 남명 정찬 대선사(대흥사 동국선원 유나)가 서상 스님 △15일 금곡 무여 대선사(축서사 조실)가 한암 스님 △16일 월송 일수 대선사(백양사 수좌)가 서옹 스님 △17일 금산 지환 대선사(범어사 선덕)가 용성 스님 △18일 금모 불산 대선사(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가 향곡 스님 △19일 봉정 영진 대선사(백담사 기본선원 조실)가 태고 보우 국사를 주제로 각각 법을 설한다.



법회 참석 대중은 〈자비경〉을 합송하며 세계 평화와 국민화합을 발원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이번 법회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흐트러진 마음을 살피고 귀한 법향을 전할 수 있는 이번 담선대법회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NGO는 사회 밝히는 등불"

조계종·아름다운동행 공모사업
14개 기관에 총 1억1000만원 지원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한 '2026년 지속가능! 공공가치! NGO 공모지원사업'에는 로터스월드 등 14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진은 4월 6일 열린 증서 전달식 모습.

조계종과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4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2026년 지속가능! 공공가치! NGO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14개 기관에 총 1억1000만원의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공모지원사업은 자비나눔 사업 일환으로, 각 기관에 500만원~15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공모에는 △사회적 약자 역량강화 분야 23개 기관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분야 11개 기관 △국제개발/탈북민 인도적지원 분야 9개 기관 △미래세대 역량강화 분야 10개 기관 등 총 4개 분야에 53개 기관이 신청했다.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창의성, 지속성 등을 심사해 총 14곳이 최종 선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미래세대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가재울청소년센터 '데이터 가든'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 나나극단' △자비신행회 '나르샤 토요배움학교'가 선정됐다. 사회적 약자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서울시립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손으로 만드는 일상'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사.인.공' △안성시노인복지관 '마음채움학교' △영통장애인주간이용센터 '보이는 음악, 들리는 그림' △화성시아르딤복지관 'Safe Money 아르미'가 포함됐다.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광주동물권단체성난비건 '시민과학으로 야생조류와 공존하는 전남광주 만들기' △부산불교환경연대 '환경보살 기후학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에코스테이션'이 선정됐다. 국제개발/인도적 지원 부문에서는 △더프라미스 '스리랑카 사이클론 피해 지구 유치원 재건 및 교육정상화 사업' △로터스월드 '라오스 동자스님들의 발심출가를 지켜주세요' △사단법인 코인트리 '스리랑카 청각장애 아동 여학생 성장 자립을 위한 수어 직업 교육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NGO 공모지원사업은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를 사회적 혁신으로 확장해 국내외 빈곤 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고자 기획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발굴하고,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 사회공헌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진우 스님은 종단의 지원금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원했다. 스님은 "불교의 자비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이 현장에서 펼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사회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이번 지원이 각 기관 활동에 마중물이 돼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종교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자비를 실천할 때 진정한 공공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은호 기자

진각종, '전쟁 종식' 식재서원불공 봉행

4월 6~12일, 전국 심인당서
"화합으로 갈등·대립 소멸"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이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식재서원 특별불공'을 봉행했다.

진각종은 4월 3일자로 전국 각 교구청 및 심인당, 신행단체, 산하법인 및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4월 월초 불공기간인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진호국가 식재서원불공'을 봉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진각 행자들은 특별 강도발원을 통해 식재서원불공에 동참하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와 국민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강도발원문을 통해 "말법시대 우리는 화합과 상생의 지혜를 잃어버린 채 이념과 이익의 갈등, 끝없는 대립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공멸이라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하오니 진각행자 모두는 진호국가불사의 으뜸 서원인 식재서원기도를 지극한 마음으로 봉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능원 정사는 "먼저 스스로를 밝히고 주변으로 그 빛을 전하여 화합과 상생의 감동을 인류가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의 갈등과 대립을 완전히 소멸하여 불법의 올바른 체로써 국가와 만생명을 제도하는 진각의 종풍을 이어갈 것을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신중일 기자

총화종, 창종 67주년 법회 및 인권상 시상

4월 15일, 총본산 실상사서
제1회 총화인권상 수여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혜각 스님)이 4월 15일 10시 30분 총본산인 영동 실상사 설선당에서 '창종 제67주년 기념 대법회 및 제1회 총화인권상 시상식'을 봉행한다. 법회에서는 종단의 67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인권 신장에 기여한 이들을 기리는 총화인권상 시상도 진행된다. 총화종은 3월 20일 총화인권위원회를 발족해 종단 차원의 인권 실천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이날 제1회 총화인권상을 시상하며 인권 가치 확산에 나선다.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가정에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정법의 가치를 세운 지 67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성과 원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창종의 뜻을 되새기고 인권의 가치를 선양하는 자리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연등회 알릴 글로벌 서포터즈 'LLF' 출범

연등회보존위원회는 4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연등회의 국제문화 홍보를 함께할 글로벌 서포터즈 '2026 LLF Friends(Lotus Lantern Festival Friends)'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2026 LLF Friends'는 총 28개국 50명으로 구성됐으며, 문화 다양성과 국제 교류의 의미를 더욱 넓히기 위해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이 함께 선발됐다.

신중일 기자

제565회 사명대사 춘계향사
일시 : 2026년 4월 23일(목) 10시 장소 : 표충사 사당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